

2.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

II. 제안이유

-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불균형을 시정하여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121
----------	-----

제안년월일 : 2003년 1월 29일
제안자 : 운영위원회

I. 주 문

1.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정비하고 지방자치제도 개선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

II. 제안이유

-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2여년 동안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등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용산선 고가화 반대 및 경의선 일부구간의 완전지하화 개설요구에 관한 건의안

정부에서는 국가간선철도망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장래 경기 북서부지역의 교통수요에 대비한 경의선 복선 전철화와 2000년대 수도권 지역의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아태지역의 중추 공항기능을 수행하고자 건설된 인천국제공항과 우리 서울시의 도심을 연결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을 추진하면서

건설교통부는 1999. 10. 9 경의선 복선전철의 용산~가좌구간 건설방안에 대하여 저심도 지하4선으로 건설하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지상1선(용산선)은 경의선 수송기능유지를 위하여 존치(공사후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철도청에서도 경의선 용산~가좌구간에 대하여 경의선과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지하화하고 지상1선을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노선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서울시와 노선협의하였으며, 우리 서울시에서는 철도로 인한 지역 간 단절, 교통·환경 등 문제발생이 예상되어 원상복구 지상 1선의 폐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철도청에서는 화물 및 화송열차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폐지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원상복구 지상 1선(용산선)을 고가화하고 고가철도 하부공간은 도로, 녹지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현재 노선협의중에 있는데

본 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요기간 시설인 철도건설 사업으로서 철도청에서는 사업기간, 사업비 추가 소요 등의 사유로 경의선 복선전철 일부 구간 지상화와 용산선 원상복구 지상 1선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경의선 복선전철과 인천국제공항 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용산선 철도의 고가화 설치 반대 및 경의선 일부구간의 완전 지하화 개설의 타당성이 있으므로